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2월 25일(주일) 제1185호



사진은 지난해 리더십 목양대회.

“순장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장영성수련회 ... 리더십 격려 및 헌신의 장(場) 3월 1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2018 순장영성수련회가 3월 1일 (목)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자리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온누리교회 리더십(장로, 다락방장, 총무, 순장) 2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장영성수련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안용태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 기도회, 점심식사 및 이벤트, 2부에서는 스킷 드라마, 패널 토의,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순장 축복의 시간, 격려 메시지 및 순장의 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1부에서 ‘순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2부에서 격려메시지와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2부에서 막 오르는 스킷 드라마에서는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순장이야기’를 주제로 연기한다. ‘나는 순장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패널토의에서는 조호영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기훈 목사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이날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신임

다락방장과 순장 454명이 임명장을 받고, 시상도 한다. 최고령 순장상, 최연소 순장상, 산전수전 순장상(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섬기는 순장), 기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서 순을 섬기는 순장), 홀리상(가장 홀리하게 순모임 인도한다고 생각되는 순장)을 시상한다. 생애 첫 번째 순장, 70세 이상 순장, 여성 순장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코너도 있다.

점심식사(바비큐)는 공동체별로 신관 뒤편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한다. 이천만광장에서는 푸드존(간식),

게임존(놀이, 이벤트), 리서치(설문조사)존이 운영된다.

순장영성수련회가 열리는 날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2월 28일 수요목양예배 이후-3월 1일 새벽기도회 전)된다. 대중교통이나 유료 주차장(동작대교 주차장, 신동아 쇼핑센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셔틀을 이용해도 된다. 3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오후 3시 40분부터 5시까지 이천역 4번 출구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행사안내 12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8 온누리 찬양사역자 모집

찬양사역팀, 챔버, 예배인도팀

예배사역본부에서 오늘(25일)부터 ‘2018 온누리 찬양사역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찬양사역팀, 챔버, 콰이어, 찬양인도팀이다. 온누리교회에 등록 세례교인(60세 이하)이 대상이다.

온누리 찬양사역자로 선발되면 서빙고 주일 1~4부, 새벽 1부, 양재 주일 1~4부, 6부, 도곡 1~2부, 새벽기도회, 부천 주일 1~4부, 6부, 수요일야예배, 새벽기도회, 수원 주일 1~4부,

수요일예배, 여성중창팀, 수요일여성예배, 대전 주일 1~2부, 수요일저녁예배, 남양주 주일 1~4부, 평택 주일 1~3부, 수요일예배, 수요일여성예배, 새벽기도회, 인천 주일 1~3부, 수요일여성예배, 수요일부흥예배, 강동 주일 1~3부, 새벽기도회, 수요일저녁예배, 수요일오전예배, 양지 주일 1~3부, 온누리M센터 주일 1~2부 예배 등을 섬기게 된다(모집공고 13면).

3월 19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주차증 부착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3월 18일(주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오후 8시부터 18일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날은 자가용 대신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사전에 주차증을 발부받은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챔버 중 첼로 연주자 외 등이 그 대상이다. 교회 주변 불법주차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며,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실천운동이다.

문의: 02-3215-3434

/ 이소정 기자

2018년 1차 선교사 파송

구분	파송국	파송명(바이블네임)
장기	말라위	이하늘
		박나라
	동아시아B국	써니
단기	일본	겨자씨
	남아시아A국	조이(JOY)
	동아시아A국	김향기
	동아시아A국	홍사라
	남아시아M국	순종
FA	남아시아M국	열매
		하보
		라엘
		온니
	남아시아A국	사랑
		조이(JOY)
		여울
	동아시아B국	아이작
		리베
		라나(Lana)
		요한
		시안
		가애
		에디



People “그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남B공동체 이충구 집사를 추모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찾아왔다. 2016년 5월, 이충구 집사(67세, 강남B공동체)가 췌장암에 걸렸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내 최희숙 권사를 비롯한 가족들, 공동체 지체들 모두

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런데 당사자는 의연했다. 단 한 번도 병에 걸린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 투병 중에도 선교사를 먼저 챙겼고, 공동체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도록 끝까지 독려했다. 아플 수록 선교 열정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아름다운 사람 이충구 집사가 지난달 20일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선교사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사들의 필요를 눈으로 살피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한다.”

故 이충구 집사가 공동체 선교사역자로 섬기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말이다. 이 집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선교에 헌신했다.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내고 말았다. 공동체에 ‘다락방 선교사역자’를 세우고, ‘선교헌금 통장’과 ‘선교사를 위한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충구 집사는 함께하는 선교를 꿈꿨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체 선교사역자, 2016년에는 공동체 부선교사역자로 섬겼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와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다락방별로 선교사역자를 세웠다. 다락방 선교사역자는 순원들에게 선교사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가교역할을 한다. 다락방 선교사역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선교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선교헌금 통장도 만들었다. 각 순에서 봉헌한 선교헌금을 모아둔 통장이다. 순에서 모은 선교헌금은 매월 25일 다락방마다 결연된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선교헌금 통장은 단순히 헌금만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다. 선교사들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순원들 모두가 선교를 되새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과정은 이렇다. 각 순에서 1만원씩 모은 선교헌금을 선교헌금 통장에 입금하면 선교헌금 통장을 관리하는 회계가 다락방 선교사역자



선교현장에서 큰 활약을 했던 이충구 집사(사진 맨 오른쪽 상단)

에게 보낸다. 다락방 선교사역자는 선교헌금을 결연 선교사에게 보낸다. 이 과정에서 순원들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다. 그래서 이충구 집사는 과정이 번거롭지만 끝까지 이 방식을 고집했다. 강남B공동체 선교사역자 박차홍 집사는 이제야 이충구 집사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충구 집사님은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깐 선교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이충구 집사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강남B공동체에 선교마인드가 더욱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집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꿈을 꾸었다. 이 집사는 순원들에게 ‘다락방 선교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그렇게 하면 선교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고, 선교마인드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 지난해 ‘강남B공동체 결연선교사 중보기도회’에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했다. 이처럼 강남B공동체가 선교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중심에 이충구 집사의 헌신이 있었다.

그 사랑과 헌신 덕분에

이충구 집사는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건강을 먼저 챙겼다. 2014년에는 ‘선교사를 위한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선교사를 위한 의료네트워크는 선교사들이 가장 빨리, 가장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병찬 집사는 이충구 집사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분은 선교사의 필요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전심으로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거든요.”

이충구 집사는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달려 나간 사람이었다. 한갑수 장로는 몽골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몽골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충구 집사가 이호영 집사와 함께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서 몽골 대학생들에게 밥 사주고, 구경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한 장로의 말대로 이 집사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선교사들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런 그가 조금씩 쇠약해졌다. 지난해 5월, 11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위독해졌다. 그 와중에도 선교를 향한 사랑을 멈

출 줄 몰랐다.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하는데 써달라며 4천 5백만 원을 헌금했다. 당시를 회고하던 이충구 집사 아내 최희숙 권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꼭 헌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올해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충구 집사가 떠난 자리에는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 강남B공동체 선교사역자 박차홍 집사는 고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강남B공동체 성도님들이 선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선교와 선교사를 향한 이충구 집사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충구 집사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셨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집사님이 공동체 선교사역자로, 도국교육관 러빙핸즈 팀장으로 사역하실 때 만났는데 그때가 벌써 6년 전입니다. 집사님의 헌신으로 강남B공동체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도국교육관을 깨끗이 쓸고 닦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매일 큐티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던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SNS로 보내주시는 큐티 말씀을 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가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았던 집

사님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순장과 다락방장으로서 순원들을 섬기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순모임에 잘 안 나오는 순원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순원들과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독려했죠. 그때 그 순원들이 지금은 공동체 리더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세운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뵈실 때 창피하지 않도록 집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집사님처럼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 이호영 집사(강남B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은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이 복을 얻게 할 자로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만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복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여덟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은 어떤 소유나 성취, 환경이나 행함이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참된 복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덟 가지 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참된 복의 상태도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측면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덟 가지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크리스소스톰은 이를 두고 ‘황금사슬(Golden Chain)’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복은 관계 속에서 경험됩니다. 혼자 누리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 가지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음, 성품, 관계를 보면 여덟 가지 복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3절).

마음의 가난한 것은 영적인 파산상태를 의미합니다. 환경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지식적으로 부요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겸손이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4절).

이 슬픔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마음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결코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웃고 기쁘게 사는 것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은 슬퍼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로 인하여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가 기울어서 바다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보를 믿고, 기술의 발전을 믿고, 미래에 대한 환상에 젖어있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믿기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보시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단어의 수동형으로 ‘위로한다’는 단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5절).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슬퍼하는 사람의 세 번째 단계는 온유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의 결과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불법으로 재판받으실 때도 “나는 죄가 없다”고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모든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뤄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온유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참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오해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함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때 필요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목마른 사람들

“복되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6절).

각 복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끌고 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슬퍼하는 마음이며, 슬퍼하는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마음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슬퍼함으로, 슬퍼함에서 온유함으로, 온유함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생명의 본능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배고픔입니다. 목말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구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더욱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채워질수록 더욱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마르면 집착하고, 중독되어서 결국 삶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목마를수록 행복합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을 갈망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면 참된 복이 찾아옵니다.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가져다줍니다.

네 번째 복으로 인하여 여덟 가지 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앞의 네 가지 복은 수동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이 배부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배부름입니다.

〈12면에 계속〉

특집대담_ 군선교팀과 4인의 군종목사

왜 군선교가 중요한가?

청년 선교의 마지막 기회이자 전도의 황금어장
4대 종교의 영적 전쟁터 ... 절대 포기해선 안 돼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 해마다 25~27만 명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입소해서 단체생활을 하는 곳 ‘군대’(軍隊)다. 우리나라 군인 수는 약 63만 명(간부 포함)이고, 복무기간은 21개월(육군 병사 기준)이다. 이 기간 동안 험기왕성한 20대 초반 청년들이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면서 국방(國防)과 통일의 선봉장으로 세워지고 있다. 월급 405,669원(2018년 병장 기준)을 받으면서 말이다.

총성만 없는 영적 전쟁터

군대는 4대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치열한 전쟁터라고도 불린다. 군선교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교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딱딱하게 법문을 들려주는 대신 현대 감각에 맞는 첨단 시청각 기기를 활용해서 법회를 열고 있다. 시설 확충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노산훈련소 호국연무사(불교법당)는 지난 2012년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4천여 명을 수용하는 법당을 신축했다. 국내 최대 규모 법당이라고 한다.

천주교는 지난 2009년 노산훈련소 연무대 본당(前 김대건본당)을 건설했다. 한 꺼번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문화공연까지 가능한 최신 시설이다. 원불교도 군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불교는 지난 2006년부터 군종 청년 40년 만에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종교로 지정됐다. 그 이후부터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4호 군종교무가 임관했다. 군종교무가 고작 4명뿐이라고 우습게 보는 안 된다. 원불교는 우리나라 인구의 0.3%만 믿는 소수종교이다. 그런 원불교가 군대에서 인정하는 4대 종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포교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에는 원불교 LA교당의 김일덕 교무가 미해군 예비역 불교 군종대위로 임관했다. 한인이 미국 불교 군종에 임명된 것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교회는 모두 1,004개다. 군종목사 260명, 군선교 교역자(민간인) 650명이 사역하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에 비하면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약 100여 개 군대 교회가 무목(목사가 없는)이고, 수많은 교회 시설이 노후됐다. 병영 시설은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군대 교회는 냉

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만 한다.

20대 청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콘텐츠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20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콘텐츠와 양육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군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군선교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20대 초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선교분야다. 과거처럼 초코파이나 햄버거를 주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 식의 전도를 하거나 열악한 교회 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군복음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저하게 부족한 군종목사와 사역자도 세워야 한다.

군선교는 청년 전도의 첨병(尖兵)이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4~5%대인데 비해 군인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20%를 웃돌고 있다. 그만큼 군대가 전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군대에서 장병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 및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 자명하다.

타종교에서 군선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염려된다. 조계종에서는 군포교를 ‘한국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선교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군선교가 청년 선교의 중심이다. 군선교 만큼 크고 풍성한 전도의 황금어장이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군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온누리교회 군선교팀과 전국에서 모인 4인의 군종목사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군선교 방안에 대해 나눴다. 다음은 한화수 목사(온누리교회 군선교팀), 나영욱 장로(온누리교회 군선교팀), 안상현 집사(온누리교회 군선교팀), 박광현 목사(소령, 6사단), 공충길 목사(소령, 수기사), 김영호 목사(소령, 56사단), 박광현 목사(소령, 51사단)와의 대담.

군선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씀해주십시오.

박광현 목사(이하 훈): “신병교육대에서 23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18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들입니다. 만약 그 청년들이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교회를 찾지 않았

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잡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결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군선교입니다.”

한화수 목사(이하 한): “군선교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는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63만 명의 장병들이 3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군선교의 대상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군선교는 매우 급박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사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군선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김영호 목사(이하 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5사단 GOP에서 근무할 때 3개월 동안 병사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니 세례 받는 장병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들이 군대에서조차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신앙을 가질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군선교는 미전도 종족 전도와 비슷합니다.”

공충길 목사(이하 공):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성경퀴즈를 내려고 훈련병들에게 (마태복음)을 읽어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훈련병들이 거의 외워 왔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기도 전에 답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놀라운 습득력을 보입니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군선교는 하나님과 장병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훈: “공감합니다. 지금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외까지 가서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민족 청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군선교를 멈춘다면 청년 복음화의 꿈이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한 명의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청년이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는 크리스천 리더가 될지도 모릅니다.”



박광현 군목
(소령, 6사단)



공충길 군목
(소령, 수기사)



김영호 군목
(소령, 56사단)

군선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첨단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 병사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만났을 때 감동받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병사들에게 아름다운 감성과 감동을 선물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곧 군선교의 시작입니다.”

한: “맞습니다. 청년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군인이 되었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식 전환을 통하여 군선교의 제자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요즘에는 병영시설과 환경, 급여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과거처럼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장병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장병들의 아픔, 외로움,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훈: “군선교 자체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군선교를 한마디로 ‘도전과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라고 한 이유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루라고 한 이유는 군선교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4~5% 정도인데 군인들의 복음화율은 20% 이상입니다. 그만큼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더 쉽게 엿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 “일요일에 휴식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장병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오면 외출과 휴가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정도입니다. 장병들이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서 교회에 온다기보다 외출이나 휴가를 얻는 도구로 교회출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만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 “이웃종교들의 적극적인 포교활동도 군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군대에서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기독교를 왜곡하는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군대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인력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선교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군대에 장병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장병들이 교회에 나와도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줄 인력이 없는 현실을 생각해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간인 사역자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예배만 겨우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소그룹모임 없이 예배만으로 청년들의 신앙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상현 집사(이하 한):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도 인적자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각 교회 군선교팀만 하는 군선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군대 교회 한 곳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력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광현 목사(이하 한): “병사들이 존경할 만한 기독교계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장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은 없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즐비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 군선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군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군대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선교를 마음에 품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요즘은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장병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이 반찬 한 가지씩을 가지고와서 병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영욱 장로(이하 나): “많은 교회들이 구제와 해외선교에 집중하는데 비해 군선교에 집중하는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부터 군선교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느 순간부터 군선교가 부가적인 사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군선교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한다면 군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넘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군선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 “우리나라에 군종목사가 260명, 민간사역자가 650명 있습니다.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의 수와 더불어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민간사역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 민간사역자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영상문화시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CGNTV를 통하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를 제작할 정도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급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독교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군대 교회에 보급해주십시오. 군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군선교는 군대에서 이뤄지다보니까 민간 교회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선교에서 선교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군선교에서는 군종목사님들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종목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3월 둘째 주에 군선교를 위한 비전헌금을 봉헌합니다. 재정 후원도 중요하지만 군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함께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군선교를 위하여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군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군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 “군선교 현장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물론 한번 오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찾아와 주시고,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나: “군선교는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군선교를 통하여 이 시대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군선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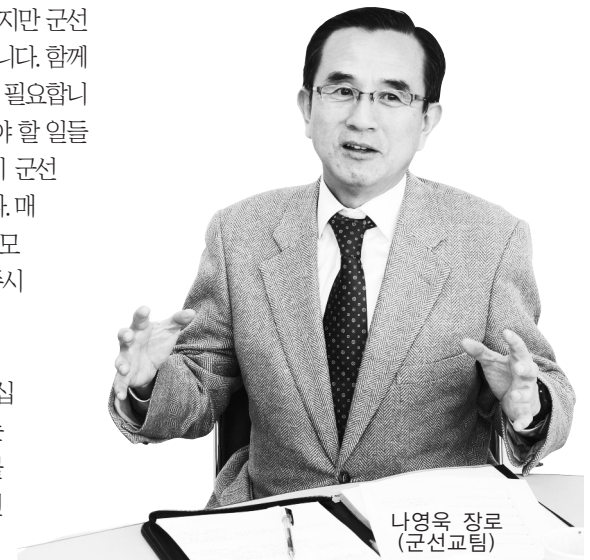
/ 정현주, 김현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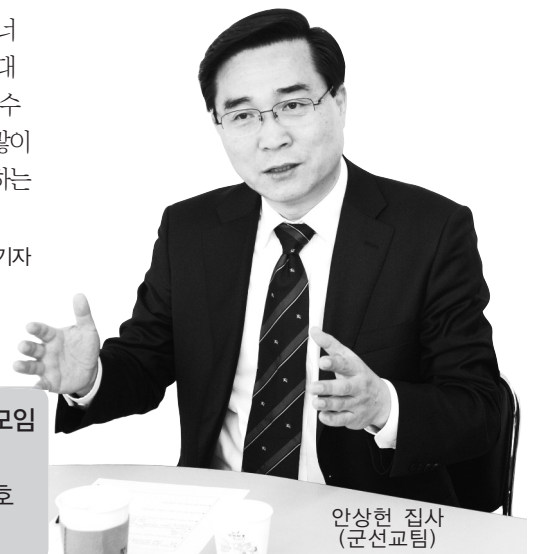
박광현 군목
(소령, 51사단)



한화수 목사
(군선교팀)



나영욱 장로
(군선교팀)



안상현 집사
(군선교팀)

군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문의: 신영섭 총무(010-2208-0881)

전문가 기고

성화(聖畵)와 영성

명화(名畵)로 본 성경이야기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바로 그림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성화(聖畵)’라고 한다. 문화평론가 김진국 성도(한강공동체)가 명화로 본 성경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진국 성도
(일.하.세. 아카데미
강사, 문화평론가)

만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유년시절 만화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교과서가 전부 만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유럽

여행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독하는 책도 여행책자가 아니라 이원복 화백의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다. 한국경제신문사에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삼국지〉를 몇 년간 연재할 때도 여러 원전과 참고서적 이외에도 삼국지 만화를 끼고 살았다. 고우영, 박봉성, 이희재, 천웨이동, 요코야마 미츠테루 등 한중일 화백들이 그린 만화를 심리학 코드로 뜯어읽었다. 각종 〈만화 성경〉도 빠짐없이 쟁겨본다. 서양미술사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는 유명 화가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그린 명화, 즉 성화(聖畵)를 참조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만화와 성화의 공통점은 ‘이미지’다. 문자로만 된 텍스트보다 그림, 사진 등 이미지로 된 텍스트가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인지심리학이론 중에 ‘그림 우월성 효과(Picture superiority effect)’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글자만으로 된 책은 불과 몇 장 넘기지 않아도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림이나 사진은 해가 바뀌어도 수천 장, 아니 수만 장까지 거의 대부분을 기억해낸다는 것이다.

기독교 공인 이전의 카타콤 동굴벽화나 중세 기독교 미술 혹은 비잔틴 제국의 이콘(icon)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남아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에서부터 카라바조, 루벤스, 엘 그레코, 고야, 고흐, 렘브란트, 샤갈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화가들이 남긴 성화를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도마야! 너는 보고서도 겨우 믿느냐?”

오늘은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대표주자 카라바조(1571~1619)의 그림 두 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요한복음(20:24~29)을 토대로 그린 ‘도마의 의심’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엠마오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 그 자리에 무슨 일인지 제자 도마가 빠졌다. 뒤늦게 나타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은 윗옷을 열어 보이신다.



왼쪽부터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 ‘마태를 부르심’.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아직도 믿지 못하는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끌어당긴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에 찔린 상처에 감히 손을 넣는다. 도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예수님과 식사까지 하면서 부활을 믿게 된 다른 제자들의 눈빛을 보라. 그들의 눈빛도 도마와 오십보백보다. 예수님의 표정도 그리 밝지는 않다.

“도마야!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어두운 얼굴 왼쪽에서부터 강한 빛이 들어와 예수님의 온 몸을 비춘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다. 놀랍게도 구원의 빛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가락까지 찔러 넣는 제자들의 이마와 등에도 환히 비친다. 드디어 도마가 고백한다. “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도마야! 너는 보고서도 겨우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느냐?”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 즉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명암대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카라바조는 내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언제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요? 도마처럼 고집스레 예수님 손바닥의 못 자국을 보려하고, 끝끝내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버릇을 언제쯤 고칠 거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를 위해 양팔을 활짝 벌리고 “너도 내 두려움과 좌절, 슬픔과 어둠의 무덤에서 떨치고 나와 어서 나처럼 부활하라!”고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쩔 줄 모른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하기는커녕 남이 피워놓은 난로의 결불이나 썩

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거저 받은 제자들 흉내나 내려는 이 못된 거지 근성을 나는 대체 어찌할 것인가?

“네? 저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마 9:9).

카라바조가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린 ‘마태를 부르심’도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한다. 마태는 당시 세관원이었다. 세리는 로마제국에 빌붙어 유대인의 고혈을 빼는 동족의 배신자, 신앙의 배반자로 죄인 취급을 받던 부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도 들어 사용하신다. 돈이 오가는 도박판 같은 분위기의 세관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꼭 집어내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는 말씀처럼 말이다.

맨 오른쪽에서 마태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눈길과 손길을 따라 역시 구원의 빛이 마태를 향한다. 마태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한다.

“네? 저 말씀인가요?”

마치 ‘나 같은 죄인을 제자 삼으시겠다고요?’ 하는 표정이 실감난다. 어리둥절해하는 마태의 모습은 다름 끝에 친구를 죽이고 살인죄로 쫓기기까지 했던 죄인 카라바조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라. 만일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나를 따르라!”하고 소명(calling)하신다면 우리는 아니 나는 어찌할 것인가? 역시 이 물음에도 나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할 따름이다.

참고로 ‘도마의 의심’은 카라바조의 그림 말고도 ‘두치오’, ‘벤자민 웨스트’, ‘조반 바티스타’ 등의 그림도 유명하고, ‘마태를 부르

심’ 역시 ‘헨드릭 데르 브루겐’이나 ‘얀 산데르스 반 헤메센’ 등의 그림도 묵상하기에 좋다. 이런 좋은 그림들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귀중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혹시 성화를 보고 묵상하는 것을 우상숭배 아니냐고 오해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인다.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이 그분의 인성만을 드러내고 신성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던 그 옛날 성상파괴주의자들의 논리처럼 말이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미지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한때 개신교에서도 구교의 폐해 때문에 기독교 회화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벽안시한 적도 물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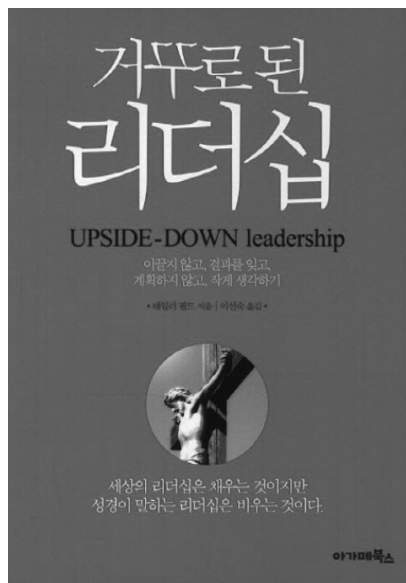
그러나 책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에서는 “기독교의 논리는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하나님의 삼위(三位)의 위격(位格)중의 한 분인 성자(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비가시적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시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온누리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화를 도구로 활용하여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흥정길 목사님은 성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림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여 성경 시대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 명화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경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구도자들은 성경 속에서 진리를 만나 삶이 아름답게 영글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화라는 이미지가 성경의 말씀과 잘 융합되어 더 깊은 영성, 더 나은 성경 본문의 이해로 나아가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해에 읽으면 좋은 도서

비우고 버리는 리더십



〈거꾸로 된 리더십〉, 테일러 필드 저, 12,000원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리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장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10대 청소년은 친구와 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그룹 참여자는 인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멤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리더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리더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리더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 책의 저자는 반(反)리더십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누군가를 이끌고, 일을 성취하고,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한 오던 진리다.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력한 원리들이 있지만 반(反)원리들 즉, 그와는 다른 관점의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 눈에 띄는 강력한 리더가 있는 반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반(反)영웅도 있기 때문이다. 반(反)리더는 우리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주거나 정반대의 길을 가까이 수용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은 채우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비우고 버리는 것이다.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 삶에서 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도 때로는 반(反)원리들 즉, 다른 관점에서 나

온 원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행동과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로 올라가는 길 대신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5-7).

이 말씀은 매우 친숙하지만 무척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버림의 자세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

저자는 “내가 삶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이끌지 않고, 결과를 잊고, 작게 생각하고, 수치를 감수하라고 말한다. 스스로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도전한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다. 리더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태도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크든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리더이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은 가장 특별하고 진실한 리더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

김종호 목사
(양재 차세대)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



〈복음의 언어〉, 제프 밴더스텔 지, 14,000원

시인이자 작가, 힙합 아티스트인 제프 밴더스텔이 작년에 집필한 책 〈복음의 언어〉가 올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책 제목처럼 일상에서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책이다. 이 책

을 복음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저자는 모든 사람을 불신자로 규정한다. 물론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이 있지만 크리스천조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는 교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답이다. 저자는 예수님처럼 복음의 언어에 유창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시 일상에서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불신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몹시 당황한 적이 있었다.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복음의 언어가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 진리를 비유와 경험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언어를 익히려면 그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와 마

찬가지로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려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언어와 함께 그 언어를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를 흡수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복음을 거스르는 생각들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살펴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언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나눠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미션 월요일(Mission Monday), 가르치는 화요일(Teaching Tuesday), 가족과 함께 하는 수요일(With-Family Wednesday), 감사하는 목요일(Thanksgiving Thursday), 즐거운 금요일(Fun Friday), 섬기는 토요일(Serving Saturday)”

이와 같은 실제적인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한다.

이 책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저자가 실제

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을 정리했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고, 난관에 부딪혀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생한 글을 써내려가지 못했을 것이다. 책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통해 저자가 씨름해 온 복음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으로 인한 삶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가정과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읽는다면 더 큰 감동이 있을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다면 이 겨울 이 지나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언어를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복음의 언어를 선물하기를 바란다.

이서진 목사
(대학청년부 CH630 공동체 담당)

특별기고 | 쿼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1)

쿼어 신학과 정통 신학은 처음부터 다르다



김명환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대학
원 설립원장)

쿼어 신학은 모든 것은 항상 변동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경이 동성애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쿼어 신학은 동성애 이해를 모든 것은 항상 변동하고 있다는 생성의 철학과 후기현대주의에 정박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사조에 맞춘다. 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이성애적 규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을 전개하여 성경이 기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변호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정통개혁신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지고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른 죄악이라고 천명한다. 몇 년 전에 별세한 독일의 보편사 신학자 판넬베르그가 말하는 바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이 동성애에 관하여 가증하다고 가르치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킨다. 그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아니라고 천명한 바 있다.

진정한 기독교는 소위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와 신분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권 또한 존중한다. 진정한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으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약자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셨던 예수의 복음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남녀의 사랑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혼과 가정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 결혼과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산되며 사회와 국가와 인류는 존속될 수 있다. 이성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결혼, 즉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성(兩性) 결혼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복이요 인류 생존의 조건이요 기반이다.

동성애 정당화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

‘쿼어(queer)’란 용어는 ‘낯설고 이상(異常)’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쿼어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의 주제는 정상적 사람들의 상식적 이해에 대하여 낯설고 이상한 주제(천지 창조,

성육신, 동성녀 탄생, 부활, 종말 등)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들은 정통신학자들이 낯설고 이상한 것들을 ‘과기하고 병든 것이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치하고 억압하여 신학의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밀어내고 쫓아내 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래 신학의 중심이 지니고 있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을 찾아내어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옴으로써 낯설고 이상한 것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말하는 ‘낯설고 이상한 것’이란 동성애를 뜻한다.

쿼어 신학자들의 시도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들은 정통 신학이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고 억압해 왔으나 정통 신학 자체가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닌가 반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성애란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동성애에 대한 거부와 모독과 억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을 시대적 문화적 산물로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시대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빚거나 감으로써 구약과 신약에 명료하게 가증한 죄악으로 묘사되고 있는 동성애 기록을 그 시대적 문화적 표현이라고 변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통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동성애를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쿼어 신학의 전략은 다섯 가지 점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쿼어 신학은 신학의 본래적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쿼어 신학은 모든 시대의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을 탐구하는 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통 신학에 의하면 신학이란 모든 시대의 인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 이성에게 낯설고 이상한 존재이지만, 항상 윤리적인 보편성을 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쿼어 신학이 지지하는 주제인 낯설고 이상한 것, 동성애란 창조 질서로서의 양성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통 신학의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는 처음부터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가르침에 배치된다.

신학의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없다

동성애의 정당화는 신학의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없다. 쿼어 신학의 주제는 동성애의 정당화인데 이것은 신학의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없다. 쿼어 신학자 캐시 루디(Kathy Rudy)는 동성애는 신학의 중심부를 구성해야 하고, 동

성애에 대한 모독과 억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젠더주의(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긴 하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젠더주의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할 수 없고,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다.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인간의 성적 삶의 한 부분에 속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성애는 전통적 도덕규범에 대하여 해체를 선언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성 행동을 강조하는 해체주의자 삶의 한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쿼어 신학은 해방 신학이나 혁명 신학처럼 후기현대에 시대적으로 나온 상황 신학(contextual theology)에 머무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용어 의미가 과기하다

쿼어 신학이 사용하는 ‘낯설고 이상하다’는 용어의 의미가 과기(怪奇)하다. 그것은 정통신학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쿼어 신학은 성적 의미, 특히 동성애와 관련하여 낯설고 이상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나, 정통 신학은 낯설고 이상하다는 용어는 인간 이성과 경험에 낯설다는 정신적이고,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통 신학이 말하는 낯설고 이상하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천지 창조 사건, 홍수가 갈라진 사건, 여호수아 명령에서 해가 중천에 머무른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예수의 동성녀 사건, 오병이어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38년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 등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경으로 중생한 신자가 믿음의 이성 시각으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사실은 낯설고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지성 안에서 ‘친숙해지고 타당하다’고 수긍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정통 신학이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정통신학의 관점에서는 동성애는 반인륜적,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상식적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기(怪奇)하다고 본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인류의 보편적인 성윤리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인 성적 관행이다. 동성애는 특히 남성 동성애의 경우는 합문 성교를 하게 됨으로써 배설 기관과 생식기관의 과잉(奇怪)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질서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의학적으로 각종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질서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신학적 주제들(하나님의 초월적 행위)의 낯설고 이상함과 동성애의 낯설고 이상함은 전혀 연결될 수 없다. 동성애 행위는 과기(怪奇)한 것이다.



“ 쿼어 신학은 스스로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범신론적 신관과 인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쿼어 신학과 정통 신학은 처음부터 다르다. 쿼어 신학은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정통신학과 함께 할 수 없는 과기(怪奇)한 신학이다 ”



성경의 신적 영감을 거부한다

쿼어 신학은 성경의 신적 영감을 부인한다. 성경의 영감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성경은 역사적 문서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각 시대에 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성경의 계시적 성격은 성경을 시대를 넘어서는 영구한 고전으로 인류에게 다가오게 한다. 이 신적 영감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게 만든다.

생성철학이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변하며, 만물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변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가 만드신 이 만물도 그 형태는 변하나 그 피조물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지식이나 문화와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하나 인간성이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성경이 지니는 핵심으로서 비록 그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주어진 신적 감동을 말한다. 시대나 인간 문화는 변하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감동이 그 저작 과정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신적 영감성이다. 쿼어 신학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거부하고 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인 문자적 해석을 거부

쿼어 신학은 성경에 대한 상식적 문자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러나 정통 신학은 성경을 원칙적,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문자적 언어로서 우리에게 일상 세계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정통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서 인간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믿는다. 이것을 ‘상식적 실재론(common sense realism)’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상식적 실재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해석의 기본은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성경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자적 해석이 주 도적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은유적, 다양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통 신학에서는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시대의 해석은 그 본래적 의미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성경해석의 기초는 최초 사용의 원칙(law of first use)과 해석의 지속성의 원칙(law of expository constancy)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성경해석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예컨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 이 세계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나 은유의 존재가 되어 버리고

우리는 실제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공중누각의 문학의 상상의 세계를 믿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물의 유전(流轉), 만물 본질 불변성 부정

쿼어 신학자는 인간의 성(性)을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성이란 남성이나 여성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이 유동성 개념은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 소멸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헤라클리토스(Heraclitos)의 생성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헤라클리토스는 만물의 변화에는 그것을 생성하는 자연의 법칙인 로고스(Logos)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후기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로고스 사상을 부인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만물 유전의 유동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기현대의 해체주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 쿼어 신학자 루디는 후기현대주의의 인간을 “이곳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저곳에 서 있기를 바라는 존재” 곧 어떤 고정된 성적,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생성철학에 기초한 윤리관에는 고정된 보편적인 규범체계로서의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적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와 해체주의 세계관은 범신론적 세계관으로서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초월적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세계관이다.

쿼어 신학자 로버트 고스(Robert Goss)는 명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범신론적 연합을 성관계에서 성취되는 오르가즘(orgasm)과 동일시하고 있다.

“명상의 의식에 들어서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친밀한 접촉, 맛봄, 냄새, 유희 안에서 경험된다. 오르가즘의 행복은 친밀하고 장엄하며 개념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명상을 통하여 함께 사랑에 참여할 때 성적이면서 영적 잠재성은 평범한 오르가즘의 문턱을 넘어서서 두 사람의 파트너들을 새로운 실재의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여기서 쿼어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연합을 신체적인 차원에서 성적으로 느끼는 오르가즘의 허물어짐에 왜곡시키고 있다. 정통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범신론적 연합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적 연합을 한다.

범신론적 연합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적 인격적 연합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성령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 이 세계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나 은유의 존재가 되어 버리고

성(sex)의 유동성 주장, 창조 질서에 위배

쿼어 신학은 인간에 대하여 규범성에서 벗어난 위치 자유성(positional)을 강조한다. 쿼어 신학에서 규범이란 것이란 타율적 규범(heteronomous)으로서 기존 문화의 이성적 규범적 틀에 매이는 것을 말한다.

쿼어 신학은 타율적 규범을 부정한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결정한다. 여기서 인간의 위치 자유성이 나온다. 인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性)적 정체성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자유롭게 마련한다. 쿼어 신학은 인간의 정체성을 본질 없는 정체성(identity without an essence)으로 규정한다.

인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낯설고 이상한 것’을 말한다고 본다. 그러나 쿼어 신학이 인간의 정체성을 본질 없는 정체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통 신학과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물이라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쿼어 신학의 인간 정체성 규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정체성을 그리는 성경적 모습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과 정통 신학이 알려주는 인간의 본질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성경은 인간을 무규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쿼어 신학은 기괴한 신학이다

쿼어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본질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보이는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다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쿼어 신학은 스스로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신론적 신관과 인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쿼어 신학은 인본적이고 범신론적 신관과 인간관을 가르치는 낯설고 이상한 신학으로서 정통신학이 가르치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삼위일체 신관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관과는 처음부터 다른 신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 무수한 이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열조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분이라고 가르쳐 준다. 이러한 쿼어 신학은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정통신학은 함께 할 수 없는 과기(怪奇)한 신학이다.



1차 패션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패션캠프 ‘그리스도의 사람들’ (Passion)

27일까지 청소년 2천 명 참가 예정

4년 만에 막 오른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 ‘패션(Passion)캠프’가 한창이다. 올해 패션캠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1차 2월 23일부터 25일, 2차 25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진행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막 오른 패션캠프에는 청소년 약 2천 명이 참가한다.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도곡, 서산, 태안, 안산M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이번 패션캠프는 여는 예배와 닫는 예배, 저녁집회, 파워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강사는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윤길중 목사(양재열린새신자예배), 김현철 목사(행복나눔교회), 김건희 형제(극단 배우는 사람 대표) 등이

다. 파워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프로그램이다. 플룻연주자 송솔나무, 가수 박지현, 개그맨 조래훈과 조승희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차세대사역본부가 개최하는 패션캠프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패션캠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순형홀

온누리 장로중보기도모임이 3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장로중보기도모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장

로들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다. 이번 장로중보기도모임 개강예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예정이다.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개최

2월 26~27일 오전 9시 서빙고 본당

“반드시 동성애를 막아내야 합니다!”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가 2018년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점심식사, 저녁식사, 교재가 제공된다.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는 법률, 미국 사례, 신학, 의학, 운동, 기업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강사로 길원평, 김지연, 백상현, 신원하, 염안섭, 이상원, 이용희, 조영길 등이다.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는 성경적 진리와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성애 전문 교육 아카데미다.

문의: 02-2183-2728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3월 14일 개강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이룸센터, 여의도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가 3월 14일 개강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대학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이룸센터, 여의도에서 진행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필수과정과 영적성장을 위한 선택과정으로 운영된다. 필수과정은 CDC(Cristian Dicipleship Course),

일대일 양육자반이다. 선택과정은 예통비전(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90일 성경 통독)이다. 강의는 일대일 양육자반 조바울 목사, 예통비전 김승수 목사, 김용민 목사, 배행삼 목사, 우윤상 목사, 원유경 목사, 이서진 목사, 정성훈 목사, 조준목 목사, 최성민 목사, 홍기완 목사가 한다.

문의: 02-3215-3759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남양주 온누리M미션 의료봉사자 모집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 인도, 네팔에서 온 이주민을 섬겨 줄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약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의료봉사는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는 이름, 현재 근무 병원, 과목 등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mail: yesmissions@naver.com

문의: 010-3937-3927

/ 권찬송 기자

더멋진세상, 포항 흥안교회 재건축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월 8일 포항 흥안교회 재건축 비용 8천만 원을 지원했다.

포항 흥안교회(김두천 담임목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가건물이 붕괴되고, 교회당이 균열되는 등 피해를 입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나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이 재건축 비용을 후원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흥안교회 재건축 공사는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례자명단

서빙고

권오석 681024
김재원 800330
김종진 760917
이상명 540603
전호진 770902
주민숙 680712
푸지연중 901201

유아

권세현 160817
권혁찬 김혜민
김리운 161220
김효석 손지은
김이준 160616
김종욱 윤 비
박준형 160322
박노훈 강현아
장서준 170704
장연우 김지영
장한솔 160429
장새길 최혜선
정세연 161222
정상화 이경은
채지을 160311
채수원 서가영
하주는 161119
하성호 이상은

양재

강민경 730302
김문정 670714
김석향 850524
오현철 680607
이윤희 740205
이지수 811003
최철현 850330
한지윤 780724

유아

권화평 170607
권오영 정인에
김유진 170122
김정수 김경은
김예담 160202
김준홍 이주현
김유재 160919

김현태 이미연
박서우 160118
박찬우 박수진
신유라 160903
신윤철 권은주
신이안 160324
신유현 유지인
신이엘 170405
신유현 유지인
오민하 170214
오 탄 강주아
유경모 160313
유대연 김지산
이윤준 160225
이해원 심민정
정리아 170626
정일욱 광 샘
최서안 160922
최호준 조소현
최시은 160314
최인석 허은정
홍리우 160427
홍성훈 장현주

〈대청〉 길

유아
이주이 170202
이규현 송명화

여호수아

김일수 851128
김해운 861124
류다연 931021
신유림 911127
신윤식 850812
임지영 930119

허브

고주원 970505
박수지 921015

임교

이재원 940216
임경빈 960603

선교재능기부 2차 오리엔테이션

3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 비전홀

2000선교본부가 개최하는 ‘2018 온누리 선교재능기부 2차 오리엔테이션’이 3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서 지난 1월 선교헌금 작성행사에서 선교재능기부 작성서를 제출하고 후원사역팀 관계자와 면담을 마쳤거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성도가 대상이다.

온누리 선교재능기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교회 선교 사역과 선교사 현황, 교회의 역할, 선교재능

기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지난 2월 24일 열린 1차 오리엔테이션은 교육과 소통 그룹, 2차 오리엔테이션은 치유와 섬김 그룹이 대상이다.

한편 지난 2월 19일 서빙고동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에서 ‘공동체 선교사역자 블레스 나이트’행사가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공동체 선교사역자 등 25명이 참석해 ‘2018년 공동체 선교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복음의전함 간담회 개최

지난 21일 (사)복음의전함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은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현 목사의 기도,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및 2018

년 계획 발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소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고정민 장로는 “CGNTV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전함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 빌리 그레함 목사를 추모하며

빌리 그레함 목사와 복음주의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지난 21일 새벽 99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소망했던 천국으로 떠났다. 30대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그는 194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군중집회를 시작으로 185개국을 다니면서 약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는 평생시 찬송가 94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즐겨 불렀으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좋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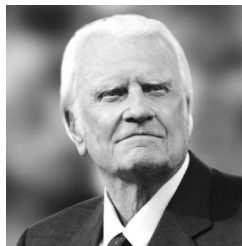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의하면 그는 이 말씀을 큰 글씨로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 놓고 항상 복음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한국 교회와 빌리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한국교회의 인연이 특별하다. 그는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서울과 부산에서 피난민을 위로하는 집회를 열

었고, 1956년 2월에는 서울 운동장에서 8만 명이 모인 집회를 인도했다. 그가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인도한 전도집회가 한국 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5일 동안 열린 집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온 1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등치가 큰 미국인 목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 메시지를 선포했고, 김장환 목사는 설교자와 목소리 톤을 맞춰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1973년 여의도 집회 모습.

가며 통역했다.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생소한 장면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파위가 있었다. 성도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했다.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해도 성령을 체험하는 것 같았다. 교회에서만 열리던 부흥회가 야외 대형 광장에서 열린 것도 놀라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 그 감동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듬해인 1974년 8월에는 CCC 주관으로

‘엑스포로 74(세계 기독교 대회)’가 열렸다. 김준곤 목사, 빌 브라이트 박사, 빌리그레함 목사 등이 주강사로 나섰다. ‘예수 혁명 -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는 140만 명이 참석하였다. 3년 후인 1977년에는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에는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에는 한국선교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10여 년 동안 연속

해서 열린 대형집회가 한국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는데 그 시작점에 빌리그레함 목사가 있었다.

영원한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복음주의 전도자였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간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평생 강조하며 설교하였다. 미국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는 김일성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 그의 사역 영역은 공산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였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영향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까지 미쳤다. 그는 한 개교회의 목사로 불리지 않고 미국의 목사로 불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12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그를 멘토로 삼았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가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은 자녀들에게 이어졌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성은 계속 회자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워싱턴 국회 의사당으로 옮겨 국민들의 조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 ‘예통비전’ 수료 간증



/ 정하영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날 순장님께서 ‘예통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셨다. 예통비전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예통비전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꿈에서 나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중간 크기의 도자기를 들고 큰 그릇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물이 새는 지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물이 새는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

“믿음과 말씀이 아니면 이 잔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다 순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예통비전이 떠올랐다.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예통비전 과정을 신청했다. 성경을 통독하는 예통비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동안 성경 한 글자도 읽지 못할 때도 있었다. 밀린 건 넘기고 그날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껴보라는 순장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복음서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치 그림 그려지듯이 다가왔다.

예통비전을 수강하며 달라진 것이 있다. 하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기도도 달라졌다. 말씀처럼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려고 한다. 성경을 하루 3장씩 읽는 것이다. 이것을 죽는 날까지 실천하기를 원한다.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쉽게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과 스테프 및 조장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통비전 부천 개강
일시: 3월 10일~6월 30일 매주 토 오전 7시
장소: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
신청: 아이스콜 홈페이지
문의: 010-3387-2941

■ 대학부 일본 연합 아웃리치 간증



/ 김유진 성도(허브공동체)

나의 아웃리치는 계속 된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때부터 막연하지만 일본사역을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을 향한 마음이 열려졌다. 나의 마음 한 자락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씩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식어 갔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회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다.

그러던 중에 일본 아웃리치에 대한 공지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선착순 마감되어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추가로 자리가 나면 연락주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며칠 뒤 팀장님께 추가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도 일본 아웃리치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3주 동안 정말 좋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갈 때 두 가지 기

도제목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 선교의 실상을 보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기도제목 모두 응답을 받았다.

오이타역 노방전도를 갔을 때였다. 한 일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일본인은 대학 시절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 물어볼 크리스천이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50년이 지나서 이제야 물어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비하셨음을 깨달았다. 오이타 순교광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순교의 피 흘림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을 기다리셨고, 기대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일본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본 선교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일본 아웃리치 일정은 끝났지만 나의 일본 아웃리치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본을 향한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과 하나님의 나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참된 복의 배부름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합니다.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7절).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로운 행동을 베푸는 사람은 이미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 없음을 보이시며”(시 18:25).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은 자는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Love in Action)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행동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8절).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정결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덧입은 의,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용서받은 정결함이 있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정결함입니다. 이러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결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지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9절).

일곱 번째 복은 여섯 번째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마음이 깨끗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약 3:17).

화평 이전에 성결(정결)이 나옵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거짓, 온갖 더러운 것들이 평화를 갇습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의로움으로 충

만한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10~12절).

마지막 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핍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가장 복된 이는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의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셨습니다. 애 통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실 만큼 복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모두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갈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8 순장영성수련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사장 내, 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순장영성수련회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3층 본당입니다.
-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별로 지정된 구역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 개인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촌역<->교회 셔틀 운행(시간 내에 연속 운행)
- 장소: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탑승
- 시간: 오전 9시~10시 30분
오후 3시 50분~5시

식사동선 및 배치

- 점심식사(바비큐)가 제공됩니다.
- 식사 장소는 동빙고 근린공원과 농구장입니다.
- 공동체별로 지정된 테이블에서 식사해 주십시오(공동체 식사 테이블 배치도).

탁아

-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4시까지입니다.
- 탁아방은 본관 2층 쉼터입니다.
- 자유놀이,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 비디오 시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외부 기관을 이용해 주세요.

의무실

- 본관 1층 러빙핸드실에서 간단한 비상약을 갖춘 의료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지병 및 치료 중에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215-3234



2018 온누리교회 찬양팀원 모집

◆ 서빙고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6:50	주찬양	주일 오전 5:20 수요일 오후 7:00	시간 : 2/25(일), 3/4(일) 오전 8:30 장소 : 성가대실(지하층 식당 맞은편) 곡목 : 찬송가 중 자유곡 1곡(1절만)	임인숙 총무 010-2796-3100
	챔버	주일 오전 6:00	시간 : 2/25(일), 3/4(일) 오전 8:00 장소 : 성가대실(지하층 식당 맞은편)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자격 : 전공자	정은미 팀장 010-6668-3056
2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7:20 목요일 오후 7:30	(1차) 시간 : 2/25(일) 오전 10:30, 오후 7:00 장소 : B101호(성가대실옆방) 곡목 : 남, 여 - 자유곡 1곡 (2차) 시간 : 3/4(일) 오후 7:00 장소 : B101호(성가대실옆방) 곡목 : 남, 여자유곡 1곡	주익수 총무 010-5223-7534
	주향한	주일 오전 10:00 화요일 오후 7:00	시간 : 2/25(일), 3/4(일) 3부 예배 후 장소 : 신관 1층 acts29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 2부 지참)	정의일 총무 010-9599-1403
3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9:30	시간 : 3/4(일) 3부 예배 후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바순, 금관, 팀파니 자격 : 전공자	유은경 팀장 010-5598-6219
	온누리위십 콰이어	주일 오전 11:20 주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8:00	시간 : 3/4(일) 4부 예배 후 장소 : 성가대실(지하층 식당 맞은편) 곡목 : 여 - 부른신 안에서 남 -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김양욱 총무 010-2111-4657
새벽 1부	챔버	월-토 오전 5:00	시간 : 개별연락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기 자격 : 전공자	김효림 팀장 010-9098-4240

◆ 양재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6:50	챔버	주일 오전 6:00	시간 : 개별연락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베이스	정다운 팀장 010-5100-3580
2부 09:00	주의빛	주일 오전 7:00 목요일 오후 7:30	시간 : 3/4(일) 2부 예배 후 장소 : 도곡교육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참) 및 면접	김진세 총무 010-9491-1171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관현악기 및 팀파니 담당자 번호로 연락시 개별 연락	진민수 팀장 010-4051-3094
도곡 1부 09:00	주경배	주일 오전 7:00-8:00 주일 오전 11:00-12:30 목요일 오후 7:30-9:30	시간 : 3/4(일) 1부 예배 후 장소 : 도곡교육관 곡목 : 자유곡(악보지참) 및 면접	이창수 총무 010-6253-2838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 더블베이스 등(전공자에 한함) 담당자 번호로 연락시 개별 연락	김유진 총무 018-6366-1397
도곡 2부 11:30	주임재	수요일 오후 7:00-9:30 주일 오전 9:00-10:50	등락곡인, 연례제한 없음 오디션 : 파트 조정을 위한 음색과 음역 테스트, 건반 주자 모집	조준수 총무 010-3139-5870
	챔버	주일 오전 10:50	오디션 : 전공자에 한함	강상명 팀장 010-2337-7707
3부 11:30	뮤지컬찬양	주일 오전 10:00 주일 오후 2:00 월요일 오후 8:00	일정 : 담당자 개별 연락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참) 자격 : 등록 및 세례교인 장소 : 비전홀(B2 식당 옆)	박다미 총무 010-2909-4360
4부 13:50	주기쁨	주일 오후 12:00 주일 오후 3:30	시간 : 3월 4일 11월 4부 예배 후 장소 : 두란노홀 곡목 : 찬송가 1곡(악보지참) 및 면접	한별 총무 010-7127-3775
	챔버	주일 오후 1:15	모집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전공자 담당자 번호로 연락시 개별 연락	박지화 팀장 010-4786-3004
6부 특별찬조대 19:00	콰이어	주일 오후 4:0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한다정 팀장 010-6861-8352
새벽기도회	챔버	매일 오전 4:40-5:1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시 개별 연락	이선희 팀장 010-3185-0607

◆ 부천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2부 09:00	주손길	주일 오전 7:40 주일 오후 11:0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윤효중 총무 010-5219-5937
	주높임	주일 오전 9:30 주일 오후 1:4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김성원 총무 010-5387-7136
3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10:3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본당 오디션 일정 : 개별 연락	김국경 총무 010-3675-1812
1부 07:00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6:30	수시 모집 (곡목 : 자유곡) 오디션 일정 : 개별 연락 모집 : 싱어, 밴드, 진행	정요한 간사 010-2402-3043
2부 09:00		주일 오전 8:00		
3부 11:30		주일 오전 10:00		
4부 14:00		주일 오후 1:00		
6부 18:00		주일 오후 5:00		
수요 심야 2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해당 요일 오전 5:00	모집 : 반주자, 싱어, 인도자	김주영 전도사 010-3169-3946

◆ 수원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7:00	주순중	주일 오전 6:00-6:50 주일 오전 9:00-10:00	면접시 개별 연락	홍성민 총무 010-4735-3515
2부 09:00	주드림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배창준 총무 010-9442-7708
	싱어팀	주일 오전 8:00		김태신 팀장 010-2593-9215
3부 11:30	챔버팀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김종대 팀장 010-6418-7646
	주함께	주일 오전 10:00-11:00 주일 오후 2:00-3:00		류태길 총무 010-5359-0115
4부 14:00	주영광	주일 오후 12:30-2:00 주일 오후 4:00-5:20		남기용 총무 010-8895-4696
	찬양인도팀	주일 오후 1:00 주일 오후 3:30-4:30		최현웅 전도사 010-4916-1712
1-4부예배	예배진행팀	각 부 예배 섬김	자막, 영상 스위처, 카메라(사진), FD 모집	이경민 간사 010-2123-3730
수요예배 19:40	수요 온누리위십 예배진행팀	수요일 오후 6:00	모집 : 싱어, 중보기도, 안내 영상 스위처, FD 모집	이원진 목사 010-7187-3384
여성중창팀	예향	매주 수요일 오후 1:30	개별 연락	황선순 팀장 010-8900-4174
수요여성예배	카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매주 수요일 오전 9:30	개별 연락	안현진 팀장 010-8931-6025

◆ 대전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07:40-8:40 주일 오전 11:00-12:3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없음	이경수 집사 010-9048-6808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08:15-08:40	모집 : 드럼 1, 일렉 1, 싱어 2명	홍석구 성도 010-5513-2227
	예배진행팀		자막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9:00-11:0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없음	이철진 집사 010-7593-0708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10-10:40	모집 : 드럼 1, 일렉 1명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홍석구 성도 010-5513-2227
	예배진행팀		자막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수요저녁 19:30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후 6:40-7:10	드럼1, 세션스이다, 베이스1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찬호 목사 010-2774-5450

◆ 남양주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8:00-8:45 주일 오전 11:00-12:4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각 파트별 00명	김찬욱 총무 010-3790-1579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9:00-11:0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각 파트별 00명 / 챔버(챔버는 오디션 진행)	유주현 총무 010-8673-6159 *챔버문의 최재영 성가사 010-9620-4520
1부 09:00	찬양인도팀	격주 토요일 오후 4:00-6:00	장소 : 본당 모집 : 싱어, 일렉	양지연 팀장 010-3349-2264
2부 11:30		격주 토요일 오후 4:00-6:00	장소 : 본당 모집 : 싱어, 일렉	최영진 팀장 010-7576-7799
3부 14:00		주일 오후 1:00	장소 : 본당 모집 : 싱어, 일렉	박성자 팀장 010-6249-5091
4부 16:00		매주 토 오후 5:00-7:00	장소 : 본당 모집 : 싱어, 일렉, 베이스, 드럼, 엔지니어	고용욱 팀장 010-3027-1965

◆ 평택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2부 11:30	주향기	주일 오후 1:30-3:00	오디션 있음(오후 2:00-3:00) 곡명 : 자유곡	최혁재 성가사 010-7462-7475
1부 09:00	챔버	주일 오전 8:30-8:50	개별면접과 오디션	임태길 간사 010-8859-7563
2부 11:30	챔버	주일 오전 10:30-11:15		
3부 14:00	챔버	주일 오후 1:30-1:55		
수요예배 19:30	챔버	수요일 오후 6:50-7:20		
수요여성예배 10:30	챔버	수요일 오전 9:30-10:30	개별교육	
새벽기도회 05:30	예배진행팀	자막		

◆ 인천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00	주은혜	주일 오전 7:30-8:40 주일 오전 11:00-오후12:30	수시모집 (면접시 개별 연락)	유상재 팀장 010-5724-1839
	챔버	주일 오전 8:20-8:50	모집: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8:20-8:50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정은옥 팀장 010-3483-5560
	예배진행팀	주일 오전 8:00-8:50	자막 / 방송영상 스위처 / 예배진행 FD	최현진 간사 010-5351-9241
2부 11:30	주능력	주일 오전 9:00-11:30	수시모집 (면접시 개별 연락)	정민호 팀장 010-5254-4176
	챔버	주일 오전 10:30-11:20	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문장원 전도사 010-2816-474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30-11:20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김주영 팀장 010-9554-9392
	예배진행팀	주일 오전 10:30-11:20	자막 / 영상 스위처 / 예배진행 FD	최현진 간사 010-5351-9241
3부 14:00	찬양인도팀	주일 오후 1:00-1:50	모집: 싱어 면접시 개별 연락	이요한 팀장 010-7413-2117
	챔버	주일 오후 1:00-1:50	모집 :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유한 전도사 010-2615-9250
	예배진행팀	주일 오후 1:00-1:50	자막 / 방송영상 스위처 / 예배진행 FD	최현진 간사 010-5351-9241
수요여성예배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전 9:30-10:30	싱어 / 자막	오미경 팀장 010-6306-2647
수요부흥예배	찬양인도팀	수요일 오후 6:30-7:30	싱어 / 자막 / 중보기도 / 안내	이선복 팀장 010-3774-5667

◆ 강동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7:45-8:30 주일 오전 10:30-12:00	오디션 없음	김원석 팀장 010-4644-0198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8:30	모집 : 싱어, 메인간반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예배진행팀		자막,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중희 간사 010-8718-5900
2부 11:30	주기쁨	주일 오전 9:00-10:30 주일 오후 1:10-2:30	오디션 없음	김상균 팀장 010-3412-4862
	챔버	주일 오전 10:30	오디션 없음 모집 : 첼로, 현악기	강수정 팀장 010-4519-6067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50	모집 : 싱어, 메인간반, 일렉기타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3부 14:00	프라미스 콰이어	주일 오후 12:00-1:00 주일 오후 6:00-7:00	오디션 없음	홍성훈 팀장 010-5215-1198
	찬양인도팀	악기 주일 오전 10:30-12:00 싱어 토요일 오후 2:00	모집 : 베이스기타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목사 010-3948-8594
	예배진행팀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지은 팀장 010-3298-7934
새벽기도회 06:20	찬양인도팀	해당 요일 오전 6:00	모집 : 싱어(주 1회 이상) 자막 (화~토 중 1회 이상)	김성욱 목사 010-6213-4523
수요저녁예배 19:30	예배진행팀		음향, 자막	김성욱 목사 010-6213-4523
수요오전예배 10:30	예배진행팀		음향, 자막	이미경 전도사 010-5286-7790

◆ 양지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00	찬양인도팀	1부 주일 08:30-09:00	면접 시 개별 연락	제치윤 선교사 010-4046-7601
2부 11:00	챔버사역팀	2부 주일 10:30-11:00		이강현 전도사 010-9390-2897
3부 14:00	예배진행	3부 주일 13:30-14:00		신민수 간사 010-2687-3743

◆ 온누리M센터

예배	찬양사역	연습시간	오디션(60세 이하의 세례, 등록 및 교역자 추천)	담당자
1부 09:30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08:00	모집 : 싱어, 건반,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퍼커션 담당자 번호로 연락시 개별 연락	허륜호 전도사 010-8922-3311
2부 11:00	찬양인도팀	주일 오전 10:30	모집 : 싱어, 건반,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퍼커션 담당자 번호로 연락시 개별 연락	허륜호 전도사 010-8922-3311

2018 센터처치 컨퍼런스

팀 켈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

복음, 도시, 운동

2018. 3. 5(월)~7(수) 양재 햇불회관

Speaker



제이 카일 목사
Jay Kyle

CTC Asia Pacific 이사장



노진산 목사
Stephen Ro

CTC Asia Pacific Catalyst
& Trainer
/ 리빙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스티븐 엄 목사
Stephen Um

TGC 부총재
/ 보스턴 시티라이프 장로교회
담임목사

Main Speaker

팀 켈러 목사

Tim Keller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 개척 목사
CTC 이사장

대상 목회자, 신학생, 사역자 등

등록비 12만원 / 786137-00-001785 국민은행
예금주: 더사랑의교회(목회자컨퍼런스)

등록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2/28까지)
www.ctck.or.kr

* 현장등록은 없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 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능합니다.

문의 031-276-7991

* 화~금 / 9:00~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입니다)

010-4952-7991

* 화~금 / 9:00~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입니다)

주최 CITY to CITY KOREA

주관방송사 CGNTV

협찬 두란노

2018 CENTER CHURCH CONFERENCE